

“어머니 기뻐할 일만...” 나눔으로 이어진 삶

박원균 여수 스타테크 회장

“방황하거나 나쁜 생각이 들 때면, 어머니가 뒤에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할 일만 하자’고 되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박원균(65·사진) 여수 스타테크㈜ 회장은 수십년째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그는 23일 이를 ‘기부’라는 표현보다 ‘어렵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고향 농지 한 평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시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돈을 벌리러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고 소회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16살, 서울로 올라가 철공소에서 일을 시작한 때도 그 무렵이었다. ‘과자는 사먹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자’는 다짐 하나로 버텼다.

첫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옷을 사서 보냈지만, 그 옷을 받은 어머니는 곧 세상을 떠났다.

박 회장은 “그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

고향 출신…가난 밟고 자수성가

2019년 사랑의열매 ‘아너’ 가입

10년간 장학금 2억1천만원 후원

“아이들 위한 대안학교 만들고파”

기 위해 하늘로 가셨다고 생각했다”며 “어머니가 기뻐할 일을 하자는 원칙이 삶의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의 나눔은 청소년을 향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내 얘기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가난은 죄가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교복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돋게 된 것도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다.

2014년 사재를 출연해 와이즈멘 진남장학회를 설립한 뒤 10년 넘게 청소년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213명의 장학생에게 2억1천만 원을 후원했다.



학업 성적보다는 가정 형편과 성장 환경을 우선해 장학생을 선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초록우산과 손잡고 지역 청소년 지원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기부를 넘어 지역 나눔 네트워크에도 동참했다.

2019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며 어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이후에도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내가 직접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의 ‘마지막 꿈’은 학교다. 흥천에서 가수 인순이가 운영하는 해밀학교를 직접 돌리려는 뒤 “사업이 아닌,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지역에 만들고 싶다”며 초록우산과 함께 폐교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 아이들이 운전하지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구상이다.

박원균 회장은 “아이들에게 희망 하나라도 안겨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일이라면 계속하겠다”고 꾸준한 나눔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스타테크㈜는 1994년 여수산단 내 설립된 선박용 회전기계 가공 제작업체다.

/이연상 기자

광주소마고 김현군 ‘기특한 명장’ 선정

광주시교육청은 23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김현(사진) 학생이 ‘2025 기특한 명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특한 명장(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전국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했다.

김현 학생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정보보안’ 분야의 ‘기특한 명장’ 학생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실습 중심 교육과 고난도 관제 반복 훈련을 통해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 취약점 분석 등 실무 역량을 기워온 그는 ‘2024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사 이버보안 금메달’,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사 이버보안 동메달’,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사 이버보안 금메달’, ‘2025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사 이버보안 금메달’을 잇따라 수상했다./박선옥기자



김현중 금성농약사 대표, 라면 기탁

담양군 금성면은 23일 “연말을 맞아 김현중 금성농약사 대표가 전날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라면 25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평소 직접 폐지를 모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물품을 마련해온 김 대표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거창한 기부라기보다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벌써 20년이 됐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담양=정승균기자



여수경찰, ‘악성사기 예방’ 활동 홍보

여수경찰서는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투자 리딩방, 몸캠피싱 등 악성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협력단체와 협동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여수시청과 금융기관을 비롯해 ▲여수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안보자문협의회 ▲자율방범대 ▲여수상공회의소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LG화학 여수공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플래카드 게시와 전광판 송출,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박규석 경찰서장은 “수법이 고도화되는 피싱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높이는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고사리손 용돈 모아 지역사회 기부 ‘감동’

화순천재어린이집, 최근 저금통 전달
‘아나바다’ 수익금도 기탁…나눔 실천

화순의 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용돈과 바자회 수익금을 잇따라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세밀한 한파를 녹이고 있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천재어린이집은 최근 원내에서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갖고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 저금통을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이번 전달식은 원아들이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



이들은 가정에서 심부름 등을 통해 모은 동전이 어려운 이웃을 돋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뿐만 아니라 직접 저금통을 전달했다.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아

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저금통이 지역사회에 그 어떤 거액보다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투명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화순천재어린이집은 앞서 지난달에도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나눔 장터를 열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61만9천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바 있다.

오점옥 원장은 “이번 활동은 아이들이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사랑이 된다’는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천재어린이집은 인성교육과 나눔 교육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광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자 표창

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2025년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장, 송원준 맘스터치 용봉점 대표, 조혜림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임춘근 한국가스공사 과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기부문화 유공 시장 표창은 지역사회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주)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 맘스터치 전남대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단체 3곳과 임춘근 한국가스공사 과장에게 수여됐다.

(주)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는 자원봉사센터 김장김치 나눔봉사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호우 피해 지역민들을 위한 복구지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

맘스터치 전남대점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솔잎쉼터 무료급식소 등을 통해 매월 장애인·취약계층에 200개의 햄버거를 후원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빛고을장학재단에 1억5천만원을 후원,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섰다.

임춘근 한국가스공사 과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전통시장 장보기 동행·쌀나누기 행사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은진 기자

한국기자협회, 사랑의열매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사진 가운데)는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하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을 비롯해 김은지(시사IN)·김봉철(아주경제) 부회장, 김용만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횡인식 사무총장, 심정미 흥보미디어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기자들의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씨앗이 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며 “추운 겨울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 기득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시간 역할을 해온 한국기자협회가 나눔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 주고 계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 한국기자협회가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도는 23일 “전남도약사회로부터 노인복지 시설과 돌봄 어르신에게 전달할 2천200만원 상당의 겨울 내의 600벌을 기탁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과 김성진 전남도약사회장, 김동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겨울 내의는 약사회원 1천300명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5개 노인복지시설 등에 전달된다.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돋게 된다.

정광선 국장은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약사회, 노인시설 등 겨울 내의 600벌 기증

공심야약국 운영에 협조해준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김성진 전남도약사회장은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5·18유공자유족회, ‘오월의 빛’ 기획전 개최

오월 공법단체인 5·18민주유족회



자유죽회는 23일 광주 동구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45년 전 국가폭력에 항거했던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오월의 빛’ 기획전을 개최했다.

유공자회의 ‘오월의 빛’ 프로젝트

’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유공자회와 광주 지역 공예 작가들이 함께 5·18민주운동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내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앞으로 1년간 상설 전시로 운영된다.

전시에는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텁블러와 마그컵, 키링 등 생활 소품이 선보이며 각자의 창의적인 시각과 개성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오월을 기억하려는 시민정신과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오월 광주의 비극적인 역사가 의미 있는 예술 콘텐츠로 승화돼 시대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 되길 바란다”며 “5·18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행방불명자들의 마지막 삶을 기억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인사

광주동구 ◇5급 승진

▲기획예산실 이유영 ▲주민안전담당관 김종도 ▲지속가능관광과 김민진 ▲건강정책과 박우현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방 조직장

▲광주시·전라남도지부 지역본부장 안만홍

결혼

▲고(故) 배동열·박귀자씨 아들 대희군, 신경식(중흥그룹 전무이사)·김현미씨 딸 채원양=2